

仁川시내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認識 및 學習效果에 대한 研究
—식생활단원을 중심으로—

오 현 주* · 홍 성 야**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A Study on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Perception
of the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and the Learning
Achieve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Incheon
(Concerning Food and Nutrition Part)

Oh, Hyon-ju* · Hong, Soung-Y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Dept. of Food & Nutrition, Inha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nd analyse how junior-high students, both male and female in Incheon area, are recognizing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in the subject of home economics and how effectively they are learning and applying it in their actual life. 772 students, both male and female, who started to learn the subject of home economics from the 7th grade as compulsory are the respondents, and the survey is done by using questionnaire.

The result shows that after taking the course of home economics,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have got more positive view on the necessity of learning the subject. But still, on the whole, female students are more interested and more active than males the subject in learning.

As for food and nutrition part, larg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both male and female, answer that it is very helpful. They tend to be on more balanced diet and when they purchase food or when they eat at restaurant they refer what they learn about nutrition at school more often than not. A number of the students are re-practicing cooking at home after they learn it at school. Also the fact in the survey shows that more and more mothers

* 본 연구는 1996년도 인하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are getting active in asking their children to re-practice cooking.

One of the difficulties for male students to take the course is stereo-typed thinking on the separate role of man and woman in the family. But many of them started cooking some food, even though it is very simple, and the survey shows that their interest in nutrition and health increased after they were initiated into this course.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개화기 이전까지의 여성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예의범절과 가사기능을 어머니로부터 전수받는 정도로써, 규범화되고 체계화되지는 못했었는데, 1886년 미국인 선교사에 의하여 이화학당이 설립되면서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학교교육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풍속을 토대로 한 규범적 주부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고 가사과목을 정식 학과목으로 개설한 것은 1896년이었다. 교과 내용은 재봉, 수예, 음식 만들기, 예절 등 가사기능과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것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1938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화여전 가사과 졸업생에게 사립여자 고등학교 가사과 교원 자격증을 수여함으로써 가사과 교육이 정상의 계도에 오르게 되었다. 해방 후 1947년 「가사과」로 불리었던 것을 「가정과」로 개칭하였고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의 가정관리와 가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실천적 교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기능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가정생활의 관리와 인적, 물질자원의 활용을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화한 것이다.

1973년 제 3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가정 교과목을 「가정」과 「가사」로 분리하여 가정을(1, 2, 3학년)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고 1987년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전대로 가정교과를(여자중학교)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으며 이 때 크게 변화한 것은 남녀 공학의 중학교에서 기술·가정의 교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실업·가정 교과명으로 여학생에게만 실시하였던 가정과 교육을 5차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남학생에게도 가정교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특히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를 남녀가 공통필수로 이수하도록 개편한것은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의 큰 변화이며 이는 가정 생활이 삶의 질

적 향상을 위한 남녀 공동의 장이란 인식으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1학년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6차 교육과정 개편 후 처음으로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학생들이 가정교과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알아보고, 또 가정교과목 단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생활 단원에 대한 내용의 인식과 활용 및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앞으로 가정 교과를 지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자는 인천지역에 있는 남녀중학교(8개교)에서 1학년 가정교과를 이수한 2학년 남녀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학생 400명 남학생 400명 총 8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중 772부가 회수되어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1996년 2월 12일부터 2월 17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정보완하여 1996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 하였다.

2. 조사 방법

조사대상자 총 8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내용을 설명한 후 기록하게 하였다. 그중 772부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고 예비조사 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14개 문항,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 8문항,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활용 21문항, 가정교과에 대한 학습성과 10문항으로서 총

53문항으로 하였다.

3. 조사 자료의 처리

본 자료의 분석은 SAS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N), 백분율(%), 평균(M) 및 표준편차(SD)를 구하였고 각 문항의 반응에 대한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 (chi-square) 와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통계처리시 각 항목당 무응답한 부분은 삭제 처리 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1) 일반적 특성

〈표 1〉과 같이 아버지의 연령은 40代가 전체 대상자의 82.0%였으며 어머니의 연령도 40代가 전체 대상자의 53.7%로 조사 대상자의 부모 연령층이 대부분 40代 였으며 부모의 학력은 조사 대상자의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특성	집단	구 분		여학생	남학생	계		
부모의 연령	만 39세 이하	부	모	55(14.1) 175(44.1)	36(9.8) 170(46.1)	91(12.0) 345(45.0)		
		부	모	309(79.2) 216(54.4)	313(84.8) 195(52.8)	622(82.0) 411(53.7)		
		부	모	26 (6.7) 6 (1.5)	20 (5.4) 4 (1.1)	46 (6.0) 10 (1.3)		
부모의 교육 수준	국졸이하	부	모	24 (6.1) 35(19.0)	21 (5.7) 34 (9.6)	45 (5.9) 69 (9.3)		
		부	모	61(15.6) 103(26.6)	73(19.9) 97(27.4)	134(17.7) 200(27.0)		
		부	모	227(57.9) 224(57.7)	207(56.4) 197(55.7)	434(57.2) 421(56.7)		
		부	모	80(20.4) 26 (6.7)	66(18.0) 26 (7.3)	146(19.2) 52 (7.0)		
총 월수입	99만원 이하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만원			65 (17.3) 124(33.0) 89 (23.7) 43 (11.4) 55 (14.6)	40(11.2) 130(36.5) 86(24.2) 60(16.9) 40(11.2)	105(14.3) 254(34.7) 175(23.9) 103(14.1) 95(13.0)		
		계		376(100)	356(100)	732(100)		
		부모의 직업	무 직	부	모	0 217(56.8)	0 202(58.1)	0 419(57.4)
				부	모	35 (9.3) 38 (9.9)	28 (8.2) 24 (6.9)	63 (8.7) 62 (8.5)
				부	모	114(30.3) 36 (9.4)	106(30.8) 29 (8.3)	220(30.6) 65 (8.9)
부	모			134(35.7) 48 (12.6)	107(31.1) 54(15.5)	196(27.2) 82(11.2)		
부	모			93 (24.7) 43 (11.3)	103(29.9) 39 (11.2)	168(22.2) 352(46.6)		
1학년말 성적	상 중 하			96 (24.4) 186(47.3) 111(28.3)	72 (19.8) 106(45.7) 125(34.5)	168(22.2) 352(46.6) 236(31.2)		
		계		393 (100)	363 (100)	756 (100)		

※무 응답자는 자료에서 제외하였음

57.0%가 고졸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졸, 대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한달 총 수입은 99만원 이하가 14.3%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100~149만원의 가정이 전체 대상자의 34.7%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전체의 3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행정 관리직」 30.6%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이 전체 대상자의 57.4%로 나타나 이연숙 연구(1987년)의 78.7%, 이승희 연구(1990년)의 71.7%, 이영숙 연구(1982년)의 61%, 이은정 연구(1992년)의 60.3%, 이정민 연구(1995년)의 60.8% 보다 낮아진 것은 여성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여성의 능력이 향상되어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으로 본다. 1학년 학년말고사의 성적은 상위 10등까지를 상

(上), 상위 11등~30등까지를 중(中)으로, 나머지를 하(下)로 보았을 때 상이 22.2%, 중이 46.6%, 하가 31.2%를 차지하여 정상 분포를 이루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식생활에 대한 기본태도

①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

가정생활에서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식생활(62.5%), 주생활 (31.5%), 의생활(6.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여학생 가정은 남학생 가정보다 식생활, 의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 남학생 가정은 여학생 가정보다 주생활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표 2〉 가정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

(N(%))

성 별	여학생	남학생	계	비 고
항 목				
의생활	23(6.1)	21(5.90)	44(6.0)	d · f=2 $\chi^2=6.31^*$
식생활	249(66.6)	208(58.3)	457(62.5)	
주생활	102(27.3)	128(35.8)	230(31.5)	
계	374(100)	357(100)	731(100)	

* $P < 0.05$

② 식사 준비

우리집의 식사준비는 〈표3〉과 같이 어머니가 하는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93.6%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할머니가 3.9%, 본인이 1.6%, 누나나 언니가 0.6%, 가정부나 파출부가 0.3%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 식사준비는 주로 어머니가 맡아서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유의적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보다 어머니가 만드는 경우나 가정부나 파출부가 만드는 비율이 높았고 남학생인 경우 여학생보다 누나나 동생, 본인, 할머니가 만드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식사 준비

N(%)

성 별	여학생	남학생	계	비 고
항 목				
어머니가 만드신다	378(95.5)	340(91.6)	718(93.6)	d · f=4 $\chi^2=5.06^{n.s.}$
가정부나 파출부가 만든다	1 (0.2)	1 (0.3)	2 (0.3)	
누나나 동생이 만든다	2 (0.5)	3 (0.8)	5 (0.6)	
본인이 만든다	5 (1.3)	7 (1.9)	12 (1.6)	
할머니가 만드신다	10(2.5)	20(5.4)	30(3.9)	
계	396(100)	371(100)	767(100)	

n · s=not significant

③ 식사준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

식사준비에 아버지의 참여는 <표4>와 같이 전체 대상자의 32.1%가 어머니를 자주 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만39세 이하의 아버지가 42.5%, 40代에서는 31.5%, 50代에서는 20.0%로 나타나 아버지 연령이 낮을수록 식사 준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맞벌이 부부가 많을 뿐 아니라 아버지는 부엌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휴일에만 어머니를 도와주는 아버지는 17.9%로 나타났고, 전혀 만드시지 않는 아버지는 26.7%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중 약 1/4정도가 아직도 식사준비는 여자가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외식 횟수

외식 횟수는 전체 대상자의 60.1%가 월 1~2회 정도 하는것으로 가장 높았고, 외식을 안한다가21.4%, 3~4회가 14.4%, 5회 이상이 4.1%로 <표5> 나타나 황은선의 연구(1992년)에 나타난 결과에 비해 외식횟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총수입이 199만원 이하의 가정이 200만원이상의 가정보다 외식을 안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총수입이 150~249만원의 가정에서는 월 1~2회 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총월수입이 250만원이상의 가정에서 한달에 3~4회 외식하는 비율과 5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이 다른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P<0.001$). 월 총수입이 99만원 이하의 가정에서도 72.4%가 외식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외식의 인식이 수입에 관계없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식사준비에 아버지의 참여

N(%)

항 목	년 령 별				계	비 고
	만39세 이하	만40~49세	만50~59세			
어머니를 자주 도와 주신다	37(42.5)	190(31.5)	9(20.0)	236(32.1)	$d \cdot f=6$ $\chi^2=8.67^*$	
휴일에만 어머니를 도와주신다	18(20.7)	142(23.6)	11(24.4)	171(23.3)		
차 정도는 혼자 끊여 드신다	12(13.8)	107(17.8)	12(26.7)	131(17.9)		
전혀 만드시지 않는다	20(23.0)	163(27.1)	13(28.9)	196(26.7)		
계	87(100)	602(100)	45(100)	734(100)		

* $P<0.05$

<표 5> 외식 횟수

N(%)

항 목	총수입					계	비 고
	99만원 이하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만원 이상		
5회 이상	3(2.9)	7(2.8)	3(1.7)	4(3.9)	13(13.7)	30(4.1)	$d \cdot f=12$ $\chi^2=8.56^{***}$
3~4회	9(8.6)	29(11.5)	21(12.1)	19(18.4)	27(28.4)	105(14.4)	
1~2회	64(60.9)	153(60.7)	112(64.4)	67(65.1)	42(44.2)	438(60.1)	
안한다	29(27.6)	63(25.0)	38(21.8)	13(12.6)	13(13.7)	156(21.4)	
계	105(100)	252(100)	174(100)	103(100)	95(100)	729(100)	

*** $P<0.001$

⑤ 음식 만들기

음식 만들기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음식 만드는 것에 대한 흥미는 남녀학생 모두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

나 이영숙의 연구(1990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유의적 차가 나타났다.

〈표 6〉 음식 만들기

문항	성별	평균(표준편차)	빈도	범위	비고
음식만드는 흥미 여부	여학생	3.89(0.94)	398	1~5	t=4.21***
	남학생	3.60(0.99)	371		

***P<0.001 (n·s=significant)

2.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1) 가정교과의 내용에 대한 인식

① 가정과목을 배우기 전과 후의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

가정 과목을 배우기 전의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은 〈표7〉에 나타났듯이 57.2%가 초기 가정과 교육의 주요 내용이었던 음식 만들기, 옷 만들기, 육아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술 다시말해서 가사 노동의 단순 역할을 담당하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자로서 배워야 할 교양과 지식이라는 인식은, 1990년 이승희의 연구에서는 30.5%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13.5%로 나타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이 여자만이 배우는 교과라는 인식에서 점차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 교과를 학습

한 후에는 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이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내용으로 한다가 52.0% 답하였고 유의적차가 인정되었다. 이는 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변화라 하겠으며 바람직한 교육의 효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남학생의 34.6%가 1년간의 가정과 교육을 받은 후에도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해 여전히 음식 만들기, 옷만들기, 육아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술로 보았고 8.7%가 여자로서 배워야 할 교양과 지식이라는 내용으로 여전히 전근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가정 교과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단기간에 전환되기는 쉽지 않으나 가정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유의 하셔야 될 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표 7〉 가정과목을 배우기 전과 후의 가정과 교과내용에 대한 인식

N(%)

문항	항목	성별			비고
		여학생	남학생	계	
가정과목을 배우기 이전의 가정교과 내용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92(23.1)	84(23.0)	176(23.0)	d·f=3 χ ² =3.67 ^{n.s.}
	음식 만들기, 육아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술	236(59.1)	202(55.2)	438(57.2)	
	가정 생활에서의 가족관계	19(4.8)	29(7.9)	48(6.3)	
	여자로서 배워야 할 교양과 지식	52(13.6)	51(13.9)	103(13.5)	
	계	399(100)	366(100)	765(100)	
가정 과목을 배운 후의 가정교과 내용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223(56.8)	166(46.8)	389(52.0)	d·f= χ ² =17.77***
	음식 만들기, 옷만들기, 육아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술	105(26.7)	123(34.6)	228(30.5)	
	가정 생활에서의 가족관계	17(4.3)	35(9.9)	52(6.9)	
	여자로서 배워야 할 교양과 지식	48(12.2)	31(8.7)	79(10.6)	
	계	393(100)	355(100)	748(100)	

***P<0.001, n·s=significant

② 가정 교과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가정과 교육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P < 0.00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8). 특히 여학생의 72.3%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김복남(1896년), 이연희(1986년), 고현숙(1990년)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가정생활에서 여자는 쉽게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으나 남학생은 가정생활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주위의 여러 여건으로 실천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가정 교과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N(%)
항 목 \ 성 별	여 학 생	남 학 생	계	비 고
도움이 되었다	285(72.3)	161(43.9)	446(58.6)	d · f = 1 $\chi^2 = 63.46^{***}$
도움이 되지 못했다	109(27.7)	206(56.1)	315(41.4)	
계	394(100)	367(100)	761(100)	

*** $P < 0.001$

③ 가정 교과에 대한 흥미 및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가정교과에 대한 흥미 및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결과(표9) 과 같이 여학생은 가정 과목에 흥미가 조금 있는

편으로 가깝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이은정의 연구(1992년)와 유사한 경향으로 여학생보다 가정과목에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표 9〉 가정 교과에 대한 흥미 및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문 항	성 별	평균(표준편차)	빈 도	범 위	비 고
가정교과에 대한 흥미	여학생	2.78(0.67)	398	1~4	$t = 6.13^{***}$
	남학생	2.46(0.75)	371		
가정교과의 내용이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여학생	3.10(0.73)	399	1~4	$t = 4.25^{***}$
	남학생	2.86(0.82)	371		

*** $P < 0.001$

가정과 교육내용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학생은 영향을 조금 미친다에서 상당히 미친다 쪽으로 약간 기울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조금 미친다에 가깝게 나타나 여학생과 남학생의 생각이 유의적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 교과의 남녀 공통 이수에 대한 인식

① 남녀 공통 이수의 필요성

조사 대상자의 47.5%가 반드시 필요하다, 36.4%가 조금 필요하다, 11.8%가 별로 필요없다, 4.3%가

전혀 필요없다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83.9%가 가정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남명희의 연구(1974년)에서 가정과 교육이 여자에게만 필요하다라고 80%가 응답한 것과는 대조적이였다. 또 남녀 공통 이수에 대하여 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정덕의 연구(1976년)에서는 64.7%, 김영의 연구(1985년)에서 73.7%, 이연희의 연구(1986년)에서 76.2%를 나타내고 있어 점차적으로 남녀 공통 이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가 공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고 답한 남학생이 73.2%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성숙 연구(1990년)의 69.6%보다 높게 나타나 남학생 자신도 가정 교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녀 공통 이수 이전인 김영의 연구(1985년)에서는 남녀가 공통으로 가정 교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6.3%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16.1%로 낮은 반응을 보여 남녀 모두가

가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목의 남녀 공통 이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결과 <표 10>와 같이 여학생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가정은 남녀가 공통으로 소유하는 공동체라는 진보적인 의식이 더 강하며 실제 가정생활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표 10> 남녀 공통 이수의 필요성

N(%)				
성 별	평균(표준편차)	빈 도	범 위	비 고
여학생	3.60(0.62)	398	1~4	t=12.08***
남학생	2.92(0.89)	373		

***P<0.001

② 남녀 공통으로 이수할 필요가 없는 이유

가정과목은 남녀 공통으로 이수할 필요가 없다는 학생은 <표 11>과 같이 전체의 16.1%(124명)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하여 남학생 100명중 45.3%가 남성에게는 여성에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과 기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가 유의적차는 없으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은정의 연구(1992년)

인 40.1%보다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학생 24명중 37.5%(9명)가 가정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으므로라 하였고, 또 37.5%(9명)가 남성에게는 여성에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과 기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라 응답하여 가정과 교육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여학생들이 있다는 점에도 교육현장에서 유의할 점이라고 본다.

<표 11> 남녀 공통으로 이수할 필요가 없는 이유

N(%)				
항 목	성 별		계	비 고
	여학생	남학생		
가정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다	9(37.5)	24(24.2)	33(26.5)	d · f=4 χ ² =5.09**
대학입시에 중요하지 않으므로	2(8.3)	8(8.9)	10(8.1)	
실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3(12.5)	11(11.2)	14(11.3)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는 가정 생활의 지식과 기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9(37.5)	45(45.3)	54(43.6)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수업이 형식적이므로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1(4.2)	12(12.4)	13(10.5)	
계	24(100)	100(100)	124(100)	

n · s=not significant

3. 食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활용

1) 食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① 食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성 및 선호

가정과 교과내용중 食생활단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P < 0.001$) 여학생의 반응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았다. 食생활 단원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도 (표12)와 같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선호가 남학생보다 높았다.

〈표 12〉 食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성 및 선호

문항	성별	평균(평균편차)	빈도	범위	비고
食생활 단원의 필요성	여학생	3.41(0.55)	395	1~4	t=4.23***
	남학생	3.21(0.70)	369		
食생활 단원의 선호	여학생	3.38(0.59)	397	1~4	t=3.40***
	남학생	3.21(0.76)	369		

*** $P < 0.001$

② 食생활 단원을 선호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

食생활 단원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표13)과 같이 유의적차는 없으나 68.3%가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으로 나타났고,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가 15.8%로 그다음이었다. 여학

생은 남학생보다 조리실습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사예절을 배울 수 있으므로의 비율이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와 불규칙한 食생활과 편식을 고칠수 있어서의 비율이 높았다(유의적차는 없음).

〈표 13〉 食생활 단원을 선호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

N(%)

문항	항목	성별			비고
		여학생	남학생	계	
食생활 단원을 좋아하는 이유	불규칙한 食생활과 편식을 고칠수 있어서	32(8.5)	40(12.4)	72(10.4)	d · f=3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268(71.7)	207(64.5)	475(68.3)	$\chi^2=5.99^{n.s}$
	식사 예절을 배울 수 있으므로	22(5.9)	16(5.0)	38(5.5)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52(13.9)	58(18.1)	110(15.8)	
	계	374(100)	321(100)	695(100)	
食생활 단원을 싫어하는 이유	食생활을 배우지 않아도 건강하므로	2(11.1)	14(23.0)	16(20.2)	d · f=4
	食생활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7(38.9)	15(24.6)	22(27.9)	$\chi^2=5.09^{n.s}$
	먹는 것이 취미가 없으므로	2(11.1)	6(9.8)	8(10.1)	
	실제의 食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7(38.9)	26(42.6)	33(41.8)	
	계	18(100)	61(100)	79(100)	

n · s=not significant

식생활 단원을 싫어하는 이유로는 실제의 식생활에 도움이 안되므로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식생활 단원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 79명중 41.8%(33명)로 나타났고 다음이 식생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27.9%(22명)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식생활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와 먹는 것이 취미가 없으므로의 비율이 높았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식생활을 배우지 않아도 건강하므로와 실제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의 비율이 높았다(유의적 차는 없음). 식생활 단원은 실제생활과 관련이 깊고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일선 교사의 학습방법개선으로 실제 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시청각 교재 및 실험실습이 포함되는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겠다고 본다.

2) 식생활 단원에 대한 활용

① 균형 식사의 활용

가정교과목을 배우기 전보다 식사 때 균형 잡힌 식사를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가끔 생각함이 54.7%, 항상 생각하며 식사함이 3.1%, 의식할 때만 생각함이 2.2%, 전혀 생각하지 않음이 40.0%로 나타나 균형식사를 하고자하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P < 0.001$).

가정과 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학생은 761명 중 41.4%인 315명이었는데 가정교과를 배운 후 식사를 할 때 균형잡힌 식사를 생각하지 않는 학생이 771명 중 40%인 308명으로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균형식사에 대한 관심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여학생의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목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항상 생각하면서 식사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 < 0.001$).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균형식사를 활용하게 하는데에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영양소의 양과 기능을 실제로 자기 식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교재의 개발과 시청각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밥물 넣기

밥물 넣기에 대하여 <표14>에서와 같이 눈짐작으로 대강 넣음이 37.1%, 정확히 넣는다가 26.9%, 전기밥솥의 눈금대로 넣는다가 10.8%로 나타났으며 정확히 못 넣는다가 25.5%로 나타났다. 74.8%가 스스로 밥물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P < 0.001$).

밥물을 정확히 넣지 못한다는 비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남녀에 대한 가사기능의 고정관념이 변화되어가는 한 예로 볼 수 있겠다.

③ 식품구매와 매식시 학습한 내용의 활용

식품 구매와 매식시 때에따라 학습한 내용을 비교해서 산다는 학생이 53.5%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생각지 않고 산다(24.8%) 내가 좋아하는 것은 개의치 않고 산다(17.5%) 반드시 비교하며 산다(4.2%)순이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57.7%가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는 정도가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지만 남학생도 49%가 학습한 내용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신원자의 연구(1991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과 교육이 남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④ 간식 구입

간식을 살 때 고려하는 점은 맛, 영양, 가격, 분량, 모양의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을 대상으로한 이미의 연구(1980년), 한백란의 연구(1986년), 장순영의 연구(1987년)와 비슷한 경향이고, 남녀중학생을 대상으로한 박선희의 연구(1995년)와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본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맛, 영양, 모양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격과 분량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조리실습 활동 및 태도

① 조리실습한 음식과 조리실습 횟수

<표15>에서와 같이 학교에서 조리실습한 음식은 샌드위치, 볶음밥, 기타(과일짜기, 차 끓이기), 채소 샐러드, 카레라이스, 시금치 된장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학생 모두 1학년 교과서의 샌드위치 만들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 보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과일짜기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중학교에는 아직 조리실습실이 없으므로 초등학교 수준인 과일짜기 정도의 실습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년동안 조리실습한 횟수는 2회가 50.1%로 가장 많았고 1회가 29.3%로 나타나 대부분 한 학기에 1회 정도의 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조리실습에 임하는 태도

〈표 14〉 식생활 단원의 활용

문항	성별		여학생	남학생	계	비고
	항목					
식사시 균형 식사를 생각 하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식사한다.		8(2.0)	16(4.3)	24(3.1)	d · f = 3 $\chi^2 = 18.31^{***}$
	가끔 생각하면서 식사한다.		247(61.9)	175(47.0)	422(54.7)	
	의식할 때만 생각하면서 식사한다.		7(1.8)	10(2.7)	17(2.2)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식사한다.		137(34.3)	171(46.0)	308(40.0)	
	계		399(100)	372(100)	771(100)	
밥물을 정확 히 넣을 수 있는가	정확히 넣는다		123(31.1)	81(22.4)	204(26.9)	d · f = 3 $\chi^2 = 21.75^{***}$
	눈짐작으로 대강 넣는다		160(40.4)	21(33.4)	281(37.1)	
	전기밥솥의 눈금대로 넣는다		30(7.6)	52(14.4)	82(10.8)	
	정확히 넣지 못한다		83(20.9)	108(12.8)	191(25.2)	
	계		396(100)	362(100)	758(100)	
식품 구매와 매식시 학습 한 내용의 활용	반드시 비교하면서 산다		17(4.3)	15(4.1)	32(4.2)	d · f = 3 $\chi^2 = 22.09^{***}$
	때에 따라 비교해서 산다		244(61.3)	164(44.9)	408(53.5)	
	내가 좋아하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		59(14.8)	75(20.6)	134(17.5)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		78(19.6)	111(30.4)	189(24.8)	
	계		398(100)	365(100)	763(100)	
간식 구입	영향		92(22.0)	78(19.7)	170(20.9)	복수응답임
	맛		294(70.3)	248(62.6)	542(66.6)	
	가격		22(5.3)	38(9.6)	60(7.4)	
	분량		7(1.7)	30(7.6)	37(4.5)	
	모양		3(0.7)	2(0.5)	5(0.6)	
	계		418(100)	396(100)	814(100)	

***P<0.001

〈표 15〉 조리 실습한 음식과 조리 실습 횟수

N(%)

문항	성별		여학생	남학생	계
	항목				
조리 실습한 음식	복음밥		144(23.2)	57(11.7)	201(18.1)
	시금치 된장국		7(1.1)	6(1.2)	13(1.2)
	카레라이스		4(0.7)	10(2.5)	14(1.3)
	채소 샐러드		28(4.5)	32(6.6)	60(5.4)
	샌드위치		382(61.6)	254(52.6)	636(57.4)
	기타(과일짜기, 차 끓이기)		55(8.9)	129(26.4)	184(16.6)
	계		620(100)	488(100)	1,108(100)
1년간 조리 실습 횟수	0회		6(1.5)	55(15.3)	220(29.3)
	1회		133(33.9)	87(24.2)	220(29.3)
	2회		217(55.4)	159(44.3)	376(50.1)
	3회		16(4.1)	25(7.0)	41(5.5)
	4회		10(2.5)	7(1.9)	17(2.2)
	5회 이상		10(2.6)	26(7.2)	36(4.8)
	계		392(100)	359(100)	751(100)

복수응답

조리실습에 입하는 태도는 <표16>과 같이 적극 참여함이 55.3%, 실습내용에따라 다름이 31.7%, 소극적으로 참여함이 7.1%, 노는 시간으로 생각함이 5.9%로 나타났으며 전체조사 대상자의 87%가

긍정적으로 참여함을 보여 식생활 단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6> 조리 실습에 입하는 태도

문항	성적등급별		상	중	하	전체	비고
	항목						
조리 실습에 입하는 태도	적극 참여함		114(68.7)	188(55.0)	104(46.0)	406(55.3)	d · f=6 $\chi^2=21.94^{***}$
	실습 내용에 따라 다름		36(21.7)	113(33.0)	84(37.2)	233(31.7)	
	소극적으로 참여함		9(5.4)	20(5.9)	23(10.2)	52(7.1)	
	노는 시간으로 생각함		7(4.2)	21(6.1)	15(6.6)	43(5.9)	
	계		166(100)	342(100)	226(100)	734(100)	

***P<0.001

성적등급별로 보면 상위권군이 조리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하위권군은 실습내용에 따라 실습에 입하는 태도가 다르다가 다른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5.9%의 학생은 조리 실습을 노는 시간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습 주제를 2시간에 끝마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선정하는데 비해, 1조당 배정

인원이(6~8명) 너무 많으므로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조리실습시 계량기기의 이용

학교에서 조리실습을 할 때 저울, 계량컵, 계량스푼의 사용에 대하여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결과 <표17>과 같이 여학생군은 가끔 이용한다고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표 17> 계량기기 이용

문항	성별	평균(표준편차)	빈도	범위	비고
조리 실습시 계량기기의 이용	여학생	2.32(0.66)	397	1~3	t=1.57***
	남학생	1.50(0.68)	364		

***P<0.001

대부분 남학교는 아직 조리실습실 마련이 되지 않은 형편이어서 주로 교실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실습을 하고 있어 계량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1학년 식생활 단원 목표인 과학적인 식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와 함께 조리실습실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험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교과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리실습실이 없는 것

이 한국 교육의 현상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는 남녀 중학교에 공히 실습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부의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⑤ 조리실습의 복습과 어머니의 반응

<표18>과 같이 조리실습을 한 후 복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66.3%로 나타나 이영숙의 연구(1990년)보다 높게 나타나 가정에서 실습을 복습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녀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복습한 경험이

유의적으로 높은데, 이는 여학생이 음식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한 것과 같은 경향으로 사료된다. 가정과 교육은 실천 교육, 적용 교육이므로 실생

〈표 18〉 조리 실습의 복습과 어머니의 반응

N(%)

문항	항목	성별		계	비고
		여학생	남학생		
조리 실습의 복습	있다	303(77.1)	195(54.5)	498(66.3)	d·f=1 $\chi^2=42.94^{**}$
	없다	90(22.9)	163(45.5)	253(33.7)	
	계	393(100)	358(100)	751(100)	
복습하는 시기	조리 실습한 날	7(2.3)	5(2.5)	12(2.4)	d·f=3 $\chi^2=6.72^{n.s.}$
	일요일이나 여가가 있을 때	118(39.2)	60(29.7)	178(35.4)	
	방학동안에	29(9.6)	31(15.3)	60(11.9)	
	만들어보고 싶을 때	147(48.9)	106(52.5)	253(50.3)	
	계	301(100)	202(100)	503(100)	
복습할 때 어머니의 반응	권장하신다	271(71.9)	183(57.2)	454(65.1)	d·f=3 $\chi^2=22.07^{***}$
	무관심하다	85(22.5)	91(28.4)	176(25.3)	
	싫어하신다	21(5.6)	46(14.4)	67(9.6)	
	계	377(100)	320(100)	503(100)	

P<0.01 *P<0.001 n·s=not significant

활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실습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조리실습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시기는 아무때나 만들어 보고 싶을 때가 50.3%, 일요일이나 여가가 있을 때가 35.4%, 방학 동안에가 11.9%, 조리 실습한 날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조리실습할 때의 어머니의 반응은 권장하신다, 무관심하다, 싫어하신다의 순으로 나타나 권장하는 어머니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어머니가 조리의 복습을 권장하는 경우가 여학생의 어머니가, 남학생의 어머니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남학생의 어머니도 57.2%가 조리실습의 복습을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내에서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상된 교육의 성과로 생각된다.

4. 식생활단원 학습 후의 관심

1) 관심을 갖게 된 단원

가정 교과를 배운 후 관심을 갖게 된 단원으로는 〈표19〉와 같이 청소년기의 영양관리 단원이 48.8%, 나와 가정생활 단원이 24.1%, 의복에 대한 이해 단원이 17.5%, 가정자원의 활용과 관리 단원이 9.6%로 남녀학생 모두 청소년기의 영양 관리 단원에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승희(1990년)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가정 교과를 배운 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청소년기의 영양관리와 가정자원의 활용과 관리에 대하여 유의적으로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의복에 대한 이해, 나와 가정생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가장 흥미 있는 식생활 소단원과 더 배우고 싶은 내용

식생활 단원중 가장 흥미 있는 소단원은 〈표20〉과 같이 조리의 기초, 식품과 영양소,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생활, 청소년기 영양의 특징 단원의 순

〈표 19〉 관심을 갖게 된 단원

항 목	성 별			비 고
	여학생	남학생	계	
나와 가정 생활	104(26.3)	77(21.6)	181(24.1)	d · f=3 $\chi^2=20.91^{**}$
가정 자원의 활용과 관리	32(8.1)	40(11.2)	72(9.6)	
청소년기의 영양 관리	178(44.9)	189(53.1)	367(48.8)	
의복에 대한 이해	82(20.7)	50(14.1)	132(17.5)	
계	385(100)	361(100)	746(100)	

**P<0.01

〈표 20〉 가장 흥미 있는 식생활 소단원 및 더 배우고 싶은 내용

문 항	성 별			비 고	
	항 목	여학생	남학생		계
가장 흥미 있다고 느끼는 식생활 소단원	청소년기 영양의 특징	21(5.3)	52(14.3)	73(9.6)	d · f=3 $\chi^2=33.54^{***}$
	식품과 영양소	52(13.2)	65(18.0)	117(15.5)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생활	48(12.2)	63(17.4)	111(14.7)	
	조리의 기초	273(69.3)	182(50.3)	455(60.2)	
	계	394(100)	362(100)	756(100)	
더 배우고 싶은 내용	식사 예절	52(13.7)	49(13.4)	101(13.4)	d · f=4 $\chi^2=16.23^{***}$
	신선한 식품의 선택과 보관	65(16.7)	66(18.0)	131(17.3)	
	식중독 예방	15(3.8)	37(10.1)	52(6.9)	
	외국의 식생활	238(61.2)	187(51.1)	425(56.3)	
	식량자원 활용 및 식량환경 오염문제	19(4.9)	27(7.4)	46(6.1)	
	계	389(100)	366(100)	755(100)	

P<0.01 *P<0.001

으로 나타났으며 조리의 기초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생활 단원을 선호하는 이유로써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에 청소년기 영양의 특징 단원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이론 수업을 어렵게 느끼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교수법에 대한 일선교사의 연구가 요망된다.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리의 기초에 대하여 유의적으로 더 흥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도 50.3%가 조리실습에 흥미가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겠다. 남학

생은 여학생보다 조리의 기초를 제외한 다른 부분 즉 식품과 영양소,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생활, 청소년기의 영양특징에 대하여 더 많은 흥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배운 식생활 내용 외에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은 외국의 식생활, 신선한 식품의 선택과 보관, 식사 예절, 식중독 예방, 식량 자원 활용 및 식량 환경 오염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더 배우고 싶은 내용중에서 외국의 식생활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스스로 식사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외식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외국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외국 식생활에 대하여 알고 싶은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외국 식생활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식중독 예방, 식품의 선택과 보관에 대하여 더 배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리실습 후의 변화와 만들고 싶은 음식

조리실습을 한 후 변화가 있었는지는 <표21>과 같이 학습 전에도 음식을 만들어 보았다가 56.7%,

학습한 후 만들고는 싶었지만 아직 못 만들어 보았다가 19.7%, 학습 후 처음으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았다가 14.2%, 학습 후에도 전혀 음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가 9.4%로 나타났다. 학습 전에 음식을 만들어 보지 않은 329명 중 32.8%인 108명, 즉 1/3정도의 학생이 가정 교과목을 배우후 처음으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본 것은 교육의 큰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329명 중 21.6%인 71명이 가정 교과목을 배우 후에도 전혀 음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일선교사들의 교수법과 특별지도에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1> 조리 실습 후의 변화 및 만들고 싶은 음식

문항	항목	성별			계	비고
		여학생	남학생	계		
조리 실습한 후 변화	학습 전에도 음식을 만들어 보았다	259(65.4)	172(47.3)	431(56.7)	d · f = 3 $\chi^2 = 34.99^{***}$	
	학습 후 처음으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았다	58(14.6)	50(13.7)	108(14.2)		
	학습 후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아직 못 만들어 보았다	55(13.9)	95(26.1)	150(19.7)		
	학습후에도 전혀 음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24(6.1)	47(12.9)	71(9.4)		
	계	396(100)	364(100)	760(100)		
조리 실습시 만들고 싶은 음식	한국 음식	150(39.9)	158(44.9)	308(42.3)	d · f = 3 $\chi^2 = 23.60^{***}$	
	서양 음식	215(57.2)	157(44.6)	372(51.1)		
	중국 음식	7(1.9)	30(8.5)	37(5.1)		
	일본 음식	4(1.0)	7(2.0)	11(1.5)		
	계	376(100)	352(100)	728(100)		

*** $P < 0.001$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리를 해본 경험과 학습후 처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았다가 높았으며($P < 0.001$) 조리를 해 보고는 싶었지만 아직 만들어 보지 못했다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조리 실습시 가장 만들고 싶은 음식은 서양음식(51.1%), 한국음식(42.3%), 중국 음식(5.1%), 일본 음식(1.5%)의 순으로 이영숙의 연구(1990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조리 실습시 만들

고 싶은 음식으로는 여학생은 서양음식, 남학생은 한국음식을 다른 음식보다 더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P < 0.001$).

4)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1년간 학습한 식생활 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결과 성적별로 보면 하위권 학생이 다른 등급의 학생보다 실제 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22).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관심이 없어서, 이론에 치우친 수업 때문에, 적용할 기회가 없어서와 실험 실습 부족으로, 교육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실생활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므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23).

〈표 22〉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성적별)

문항	등급	평균	빈도	범위	비고
학교에서 배운 식생활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상	2.56	165	1~4	F=5.71**
	중	2.51	349		
	하	2.82	228		

**P<0.01

〈표 23〉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계
	여학생	남학생	M(%)	
실험 실습 부족으로	17(23.0)	26(19.4)	43(20.7)	
적용할 기회와 시간이 없어서	20(27.0)	23(17.2)	43(20.7)	
이론에 치우친 수업 때문에	18(24.3)	29(21.6)	47(22.6)	
관심이 없어서	14(18.9)	37(27.6)	51(24.5)	
교육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4(5.4)	10(7.5)	14(6.7)	
실생활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므로	1(1.4)	9(6.7)	10(0.4)	
계	74(100)	134(100)	208(100)	

복수응답

실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208명중 24.5%인 51명이 관심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이는 이론에 치우친 수업때문이라고 한 이영숙의 연구(1990년)와는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5) 남학생이 식생활 단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

남학생이 식생활 단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남녀 역할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정덕(1976년), 이승희(1990년)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였다.

다음으로 실습시 여학생보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26.4%, 취미가 없어서가 22%, 가공 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해 음식 만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가 20.3%, 가스, 칼 등의 조리 기구가 사용시 위험하므로가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식생활 단원 학습 후의 태도

식생활 단원을 학습한 후에 간단한 음식이라도 만들어보기 시작한 학생이 〈표24〉에서와 같이 36.3%, 좋은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한 학생이 22.7%, 영양과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학생이 18.4%로 학습 태도가 바람직하게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청소년기에 필요한 영양과 식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균형식사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보아 과학적인 식생활이 되도록 한다는 식생활 단원의 목표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사료된다.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간단한 음식이라도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영양과 건강에 관해 더 많은 관심

〈표 24〉 1학년 식생활 단원 학습 후의 태도(성별)

항 목	성 별		계	비 고
	여학생	남학생		
영양과 건강에 관해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68(17.7)	57(19.1)	137(18.4)	d · f=4 $\chi^2=13.63^{**}$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95(24.7)	74(20.5)	169(22.7)	
간단한 음식이라도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	151(39.2)	120(33.2)	271(36.3)	
식사 때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34(8.8)	32(8.9)	66(8.8)	
아무런 변화가 없다	37(9.6)	66(18.3)	103(13.8)	
계	385(100)	361(100)	746(100)	

**P<0.01

을 갖게 되었다와 식사때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에서 가정교과를 남녀공통필수로 이수한 인천 시내 중학생 772명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에 대하여 설문지법으로 조사연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배경은 부모의 연령이 대부분 40대였으며 학력은 고졸자가 많았고 월 총수입은 저소득층의 비율이 낮았고 100~149만원의 가정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행정관리직이 많았고 어머니는 대부분 전업주부였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식사는 대부분 어머니가 준비하며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식사준비에 어머니를 자주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1~2회 정도의 외식을 하는 가정이 가장 많았다.

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은 배우기 전에 비하여 배운 후 남녀가 모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발전적이었다. 가정교과가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으며 가정교과에 대한 흥미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흥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과 교육내용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조금 미친다고 하였다.

가정교과의 남녀 공통 이수에 대하여 남녀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통이수를 더 희망하였다.

식생활 단원에 대해서는 남녀가 모두 필요한 단위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남녀학생 모두 식생활 단원을 선호하는 경향이었으며 식생활 단원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유의적 차는 없으나 조리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으로 나타났고, 싫어하는 이유로는 식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므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식생활 단원의 활용으로는 가정과목을 배우기 전에 비해 배운 후에는 균형식사를 하였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균형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물넣기를 정확히 넣을 줄 모르는 학생이 25%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식품 구매와 매식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는 편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간식을 구입할 때에는 맛, 영양, 가격, 분량, 모양의 순으로 구매하였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맛, 영양, 모양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학생은 가격과 분량을 고려하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학교에서 조리실습한 음식은 남녀학생 모두 샌드

위치와 볶음밥을 가장 많이 만들어 보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과일 깎기나 차 끓이기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한 학기에 1회 정도의 실습을 하였고 성적이 좋을수록 조리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적극 참여하는 이유로는 실습 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어서가 가장 높았고 성적이 낮을수록 조리실습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는 유의적차는 없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조리실습시 여학생은 계량기기를 가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계량기기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실습을 한 후 가정에서 복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복습 경험비율이 높았다. 복습하는 시기는 만들어 보고 싶을 때가 가장 높았으며 복습할 때 어머니의 반응은 권장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 어머니의 권장 비율이 남학생 어머니보다 높았다.

가정교과의 학습성과로는 가정교과를 배운 후 식생활 단원인 청소년기의 영양관리 단원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상위권 학생이 청소년기의 영양관리 단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흥미있는 식생활 소 단원으로는 조리의 기초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 배운 식생활 내용외에 외국의 식생활을 더 배우고 싶어했고 여학생이 더 배우고 싶어했다.

조리실습을 한 후의 변화로는 학습전에 음식을 만들어 보지 않은 학생의 1/3정도의 학생이 가정교과목을 배운 후 처음으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았고, 조리실습시 만들고 싶은 음식으로는 여학생은 서양음식, 남학생은 한국음식을 다른음식보다 더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학습한 식생활 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하위권의 학생이 다른 등급의 학생보다 실제 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이론에 치우친 수업때문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이 식생활 단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남녀 역할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고정관념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식생활 단원을 학습한 후에

간단한 음식이라도 만들어 보기 시작했으며,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영양과 건강에 관해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학생은 다른 등급의 학생보다 영양과 건강에 관해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와 좋은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가 높게 나타났고 하위권 학생은 다른 등급의 학생보다 간단한 음식이라도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는 식사 때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가 높게 나타났다.

제언

가정과 교육이 남녀공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고 답한 남학생이 본 연구에서 73.2%로 나타난 것은 미래의 가정이 남녀 공동의 삶의 장이란 인식의 전환이라고 본다. 따라서 가정교과가 중학교 과정에서만 남녀공통필수일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남녀 공통 필수로 설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실천과목인 가정과 교육의 효율적 성과를 견우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험실습이 가능한 수업이 되도록 일선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겠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학교에서는 조리 실습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므로 교실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실습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효과적인 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습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고현숙, 여고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1권 1호, 1990, p. 22.
- 2) 구정희, 중학교 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및 실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3) 김근자, 가정과 학습내용의 인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 37.
- 4) 김명란, 남자고등학교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 태도와 의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 59~63.
- 5) 김복남, 여고생의 가사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6,
 - 6) 김영,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남녀공통 이수율 위한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 31~35.
 - 7) 김혜정, 한국 개화기 기독교 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1975, p. 58.
 - 8) 남명희, 가정과 교육의 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강릉대학 논문집, 제6집, 1974, p. 239.
 - 9) 박선희, 남녀중학생의 식행동과 TV식품광고에 대한 태도 연구, 1995, P. 56.
 - 10) 손인수, 한국 여성 교육사, 1977, 서울:연대 출판부, p. 50.
 - 11) 신현자, 가정학습을 통한 남중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54.
 - 12) 은성숙, 중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제 4 권 1 호, 1990, p. 38.
 - 13) 이미애, 서울시내 여자중학생들의 성장 발육과 영양섭취실태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p. 12.
 - 14) 이승희, 가정학 교육의 교과내용 및 남녀공통 이수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17~29.
 - 15) 이연숙, 주부의 식생활 관리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 7.
 - 16) 이연희, 가정교과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가정과 교육의 목표 달 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 50.
 - 17) 이영숙,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부모 역할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연구, 군산대학 논문집 제3집, 군산 대학, 1982, p. 722.
 - 18) 이영숙, 고등학교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17~29.
 - 19) 이은정, 중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과 영역별 필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제 4 권 1호, 1992, p. 20.
 - 20) 이인희 外, 가정학 원론, 서울: 수학사, 1985, p.99.
 - 21) 이정덕, 가정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그 과제,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15 집, 1976, p. 148~149.
 - 22) 이정민, 구매 의사 결정 단계로 본 가족원의 역할 참여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56.
 - 23) 이철호, Food Texture 연구에 관한 최근동향, 한국식품과학회지, 11(4):314, 1979
 - 24) 이태현, 가정학 원론,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1979, p.53.
 - 25) 장순영, 여대생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p. 17.
 - 26) 전영숙, 국민학교 식생활 실습단원의 교육실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31.
 - 27) 정숙희, 가정학의 방향에 대한 고찰,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 32~35.
 - 28) 한백란, 서울시내 초 중고생들의 영양지식과 식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 38.
 - 29) 한영숙, 가정과 교과의 공통이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p. 60.
 - 30) 현기순 外, 가정과 교육, 서울:한국능력 개발사, 1975, p. 52.
 - 31) 황은선, 가정과 식생활 단원 학습내용에 대한 여중생의 학습목표 성취도와 흥미도 및 실천 정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9.